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장전동 산 30번지)
발행일 2014년 7월 31일 | 전화 051-510-1501 | 발행인 권연진 | 편집인 임상택
디자인/제작 비온후 (051-645-4115 / beonwhobook@naver.com)

학사 일정

8.12(화) - 13(수)	1·2차 수강신청
& 8.18(월) - 19(화)	
8.22(금)	2013 후기 학위수여식
9.1(월)	2학기 개강
9.1(월) - 5(금)	수강정정
9.22(월) - 26(금)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26(금)	학위청구자격 외국어시험
10.10(금)	2014 전기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제출
10.20(월) - 24(금)	2학기 중간고사
11.10(월) - 12(수)	겨울계절수업 수강신청
12.15(월) - 19(금)	2학기 기말고사
12.16(화)	국·영문 교수계획표 입력
- 2015.1.9(금)	
12.20(토)	동계휴가
12.22(월)	겨울계절수업
- 2015.1.14(수)	

학장 인사말



인문학은 라틴어의 후머니타스(humanitas)에서 유래된 말로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인문학이라 하면 대개 '문·사·철'로 통칭되기도 한다. 인간의 본질과 실존에 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을 중심에 놓으며 비판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통해 내적 성찰과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특히, 급변하는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는 융합과 통섭이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고, 그 융합과 통섭은 다름 아닌 인문학적 상상력과 통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인문학적 상상력과 통찰의 힘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문학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물질문명과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인간의 소중함, 내적 가치, 본질에 관련된 내적인 삶은 갈수록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에서 인문학이 인류의 미래에 방향타 내지는 평형수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이고 주체적인 인문학적 담론과 창의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의 미래지향적인 종합적 사고는 실용성의 측면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의 인문학은 비즈니스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문학은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지적 상상력, 통찰력, 미래지향적인 종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 준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의 경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생존하려면 인문학적 감성을 통해 남들이 감히 모방할 수 없는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인문학의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우리 인문대학은 1946년 국립부산대학교 인문학부로부터 출발하여 1953년 문리과대학이 되었다가 1981년 문리과대학이 인문대학과 자연대학으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40년을 바라보고 있다. 불혹(不惑)의 경륜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된 시점이다. 인문대 구성원 모두가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지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인문학적 상상력과 지혜로써 어떠한 상황에도 삶의 여유와 맛을 잃지 않는 지성인을 배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문대학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인문대학의 힘찬 비상을 꿈꾸어 본다.

Contents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014년 2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 학내 경암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을 통해 학사 2881명, 석사 1435명, 박사 214명이 배출되었고, 인문대학에서는 학사 214명, 석사 62명, 박사 11명 등 총 287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교내 댄스동아리공연, 효원심포니오케스트라 축하연주, 연합합창단의 공식 축하 행사 등 졸업생들은 물론 학내 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각 단과대학 수석졸업자에게 최우수상이 수여되었는데, 인문대학에서는 이민정(중어중문학과)학생이 수석을, 김은경(국어국문학과)학생이 차석을 차지했다. 학위수여식에서 김기섭 총장은 “부산대 졸업생이라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꿈을 갖고 도전하며 성실히 최선을 다해 우리사회와 세계에 공헌하는 인재로 활약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3월 3일(월) 오전 11시부터 학내 경암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식은 학사행렬 입장, 개식 및 국민의례, 학사보고, 입학 허가 선언, 내빈·보직자 소개, 입학생대표 선서, 총장 입학식사, 축사(동영상),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입학식 본 행사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식전행사로 학교 홍보영상이 상영되고, 신입생 교가 및 찬가 배우기, 국악공연, 스탭댄스 공연 등이 이어졌다. 식전행사에 이은 본 행사에서 김기섭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부산대는 신입생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문을 접하며 한국의 미래사회를 창조하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며 “미래는 꿈을 가지고 진취적인 자세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다. 부산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지성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4학년도 신입생 최종등록 결과 4846명의 학부생이 입학했으며, 그 중 인문대학 소속 신입생은 491명이다.

대학원 학술상 시상식

부산대는 1994년부터 창의력 있는 연구논문을 발표해 장차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원생들에게 대학원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2014학년도 대학원 학술상 시상식은 5월 29일(목) 인덕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박사과정 7명이 ‘대학원 학술상’을, 석사과정 4명이 ‘대학원 우수논문상’을 수상했



다. 인문대학에서는 국어국문학과 박사졸업생인 조준희(지도교수: 김정자)가 대학원 학술상을, 국어국문학과 석사졸업생인 이민희(지도교수: 박선자)가 대학원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인문대학 학생회 2014년 여름농활 실시



인문대학 학생회에서는 6월 26일(목)~7월 3일(목) 7박8일간 여름농활을 다녀왔다.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한문학과, 언어정보학과, 사학과, 철학과 등 7개 학과, 약 130여명의 학생이 함양군내 추동, 외마, 관동, 방지, 하대평, 옥산, 수계마을로 각각 배정되어 농촌 봉사활동을 통하여 농민들의 삶을 배우며 농촌의 현실을 느끼고 돌아왔다.

인문대학 학과장 명단

인문대학 12개 학과 가운데 8개 학과의 학과장이 2014학년도 상반기에 교체되었다. 각 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총괄할 학과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국어국문학과장 김려실 교수(신임)
- | 중어중문학과장 김세환 교수(신임)
- | 일어일문학과장 오경환 교수
- | 영어영문학과장 정병언 교수(신임)
- | 불어불문학과장 윤애선 교수(신임)
- | 독어독문학과장 김종수 교수(신임)
- | 노어노문학과장 최동규 교수
- | 한문학과장 정출헌 교수
- | 언어정보학과장 김태호 교수(신임)
- | 사학과장 최원규 교수(신임)
- | 철학과장 박정심 교수(신임)
- | 고고학과장 배진성 교수

국·공립박물관의 이미지 변신

배진성

ICOM(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국제박물관회의)에 의하면 박물관이란 “인간 환경의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하여 전시라는 행위를 통해 사회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연구와 교육, 과학에 이바지하는 비영리 적이고 항구적인 시설”이다.

현재 우리나라 각지에는 여러 종류의 박물관이 있으며, 모두 합하면 1천여 개는 족히 넘을 것이다. 특히 제주도를 여행하다 보면 정말 많은 종류의 박물관에 놀라게 되는데, 대부분은 사설박물관이다.

아마도 박물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별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박물관이 무엇을 하는 곳 인지는 대충 안다. 또 몇 번 가보고 나서 마치 전문가인양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일반 관람객, 미래의 고고학자를 꿈꾸는 학생들도 여럿 봤었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박물관은 일상의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도 왠지 ‘박물관’ 하면 떠오르는 첫인상은 그리 친근하지 않다. 오래된 물건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곳, 고리타분한 곳, 같은 박물관은 두 번 갈 필요 없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어렵고 딱딱한 전시내용,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행해지고 있는 건성의 단체관람 등이 이러한 이미지를 각인시켰는지도 모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국공립박물관의 주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는 단연 전시이다. 상설전시와 특별전시를 통해 역사와 문화의 생생한 자료를 느끼게 해 준다. 실제로 박물관에 가 보면, 학교 과제하러 오는 학생, 연수중인 교사, 업무에 대비하는 관광가이드와 문화유산해설사 등으로 북적이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국공립박물관에는 전시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선사 토기 만들기, 탁본, 활쏘기 등 박물관의 특성을 살린 체험학습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양강

좌는 호응도가 높다. 심지어 무료 영화상영이나 음악회도 열린다 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게다가 명절에는 제기차기, 오색강정 만들기, 윷놀이 등의 민속놀이마당이 펼쳐진다. 명절에 국공립박물관도 휴관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여느 때 보다 가족 관람객들이 더 많다.

이처럼 다소 딱딱한 이미지의 국공립박물관이 관람객들에게 친숙하게 먼저 다가가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연구기능을 중시하는 대학박물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부산대학교 박물관을 보더라도 발굴조사와 연구보고서 발간 외에 여러 가지 박물관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펼쳐고 있다. 나도 고고학자, 곡옥목걸이 만들기, 효원가족답사, 박물관대학 교양강좌 등등, 학내 구성원의 참여 열기도 뜨겁다.

그동안 다소 정적이고 진부한 공간으로 느껴졌던 국공립박물관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미있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변신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국공립박물관은 특별할 때 가는 곳, 한 번 가고 마는 곳, 찾아오는 관람객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다. 평생학습의 장이면서 때로는 공연장, 때로는 공원과도 같은 일상의 문화 공간이다.

휴가철 나들이 길에 가까운 국공립박물관에 들러보자. 사설박물관에 비해 전시 내용의 퀄리티는 말할 것도 없고, 미리 검색해보고 간다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무료다.



필자 : 인문대학 고고학과 교수
청동기시대 전공

학과/연구소 소식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에서는 3월 24일(월)~8일(금) 4박 5일간 학술현장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에서는 제주도 일대의 문학관 및 박물관, 문화유적 등을 둘러보고 자연을 느꼈으며, 답사 셋째 날 저녁에는 신입생·복학생 환영회를 겸하여 교수와 학생의 유대감을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5월 24일(토) 부산한글학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후원하는 부산지역대학생 학술논문발표대회가 열렸다. 부산지역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국어학·국어교육·언어학·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연구한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국어국문학과 최현정(3)학생이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양상과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를 발표하여 논문주제상을 수상하였다. 6월 27일(금) 국어학 여름세미나가 있었는데, 통계학과 조영석 교수의 “SPSS를 활용한 통계분석” 특강과 함께 공팅(석사과정), 고영주(석사과정), 정대식(박사과정), 김혜미(박사수료)의 개인논문발표가 있었다. 또한 국어학의 세부 전공별로 진행되고 있는 스터디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는 교내 대외교류본부에서 지원하는 ‘학과/대학단위 학생파견 사업’에 정규와 계절학기 모두 선정되어 상해교통대학으로 학생들을 파견하였다. 겨울계절학기에는 부·복수 전공자를 포함한 26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어 남덕현 교수의 인솔 하에 1월 5일(일) 출국하여 1월 26일(일) 귀국하였다. 학생들은 3주 동안 중국어를 익히고 중국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정규학기에 선발된 학생들은 부·복수 전공자를 포함한 6명으로, 2월 19일(수) 출국하여 2월 24일(월)~6월 27일(금)까지 수학하였다. 4월 4일(금)~5일(토) 1박2일 동안의 “중문인의 한마당” 행사에서는 여수와 보성일대를 답사하였다. 교수 4명, 조교 1명, 재학생 78명이 참가하여 행사 첫 날은 여수 오동도, 해양수산과학관, 진남관, 고소동 천사벽화마을을 방문·답사하고, 보성에서 숙박한 후 다음 날은 보성 일대의 대한 다원을 탐방하였다.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에서는 3월 14일(금)~15일(토) 금강국민호텔에서 ‘일어일문학과 새또맛이’를 하였다. ‘새또맛이’는 매년 있는 학과행사로 학과교수, 신입생, 재학생 간의 교류의 장이다. 학과교수 소개,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소개, 신입생의 장기자랑과 미스일문 선발대회 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는 2월 21일(금) 대학원동계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공별 학위청구논문예비발표회와 신입생 환영회를 열었으며 소속교수, 재학생과 함께 14학년도 대학원 석·박사 신입생 환영의 시간을 가졌다. 2월 24일(월) 제9회 영어영문학과 동문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는데,



데, 영어영문학과에서는 2010학년도 1학기부터 매학기 동문회 발전기금 출연으로 학부 각 학년의 성적우수자를 선정,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3월 29일(토)~30일(일) 송정청소년수련원에서 2014학년도 학부 신입생환영회를 개최하여 학부 신입생들과 재학생, 교수, 졸업생들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6월 13일(금)에는 대학원 BK 번역학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번역의 역사와 번역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번역가로서 가지는 고민과 과제에 대하여 배우고 토론하였다.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는 4월 4일(금)~5일(토) 신입생·복학생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학과생 모두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복학생과 신입생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에게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교수와의 대화로 행사의 공공성을 높이고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는 6월 5일(목) 스터디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스터디그룹은 모두 6개로, 독일어기초반 A~D, ZD(독일어자격증) 준비반, Mit Deutsch가 있으며 독일어 실력 향상을 위한 스터디가 주를 이룬다. 결과보고회는 각 스터디의 멘토와 멘티가 한 학기 동안 시행한 스터디의 내용을 간략하게 발표하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노어노문학과



부산대학교 러시아센터 주관으로 6월 5일(목) 경양체육관에서 아크로바틱 로큰롤 공연이 있었다. 아크로바틱 로큰롤은 현재 러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스포츠이며, 부산대학교에 공연을 온 팀은 유럽과 세계 챔피언십에서 1위를 차지하고 프로팀으로서 세계 순회 공연을 다닐 정도로 수준이 높은 팀이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학교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하였다.

한문학과

한문학과에서는 5월 13(화)~14(수) 학술축전을 마련하였는데, 첫째 날에는 대학원 학술발표 및 초청특강을, 둘째 날에는 학부졸업논문발표회 및 효원생년제를 진행하였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효원생년제는



인문관 앞 소공연장(필로티)에서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편, 부산대학교 2단계 특성화 분야(전통의학 지식)를 겸비한 융복합 인력양성)에서는 “석곡 이규준과 21세기 마음의학”이라는 주제로 제2회 전통의학지식사업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언어정보학과



언어정보학과는 3월 21일(금) 송정 뉴송정콘도민박에서 1박2일간의 신입생 환영회를 열었다. 60여명의 신입생과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교수들이 함께 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추억을 만드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5월 24일(토) 한글학회 주최로 제21회 부산지역 대학생 학술 논문 발표대회가 열렸다. 부산지역의 대학생들이 모여 학술논문을 발표를 하는



대회로, 언어정보학과에서는 12학년인 진한샘, 김수빈, 박자은, 노경원 학생이 각각 팀을 이루어 참가하여 논문기술 우수상과 자료수집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사학과



사학과에서는 3월 26일(수)~29일(토) 춘계정기답사로 대만에 다녀왔다. 3년마다 추진되는 해외답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함께 넓은 시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대만답사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역사적 체험과 배움의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교수·학부생·대학원생을 아우르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학생들은 안평고보·역재금성·국립고궁박물관·역사박물관·불광사 등을 방문했으며, 근대 이후 일본제국주기에 의한 식민지경험·경제성장·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만의 유적과 유물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사학과는 여름계절학기 클라우스 디트리히 교수를 초빙하여 원어특강 「서양지역사」를 개설했다. 해외우수 교수로 초빙된 디트리히 교수는 현재 룩셈부르크 대학의 교수로,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수의 대학에서 수학하여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에서 박사 후 과정을 마쳤다. 「서양지역사」는 폴란드와 한국의 근현대사를 비교함으로써 유럽사의 전개과정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유럽사와 한국 근현대사의 국면들을 세계사적 시야에서 다루어보는 기회가 되었다. 원어강의와 폴란드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수강하여 역사에 접근하는 다양한 시각을 접하면서 외국어능력도 함께 신장시켰다.

철학과



철학과는 3월 31일(월) 2014년 제1회 철학과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독일 빌레펠트 대학의 다비드 길건 교수를 초청하여 “독일이 모델인가?”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길건 교수는 독일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후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5월 21일(수)에는 구민영 변호사를 초청하여 취업특강을 열었는데, 법조인이 되는 방법 및 철학도가 법조인이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고고학과



고고학과에서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서 해마다 두 번의 정기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3월 25일(화)~27일(목) 춘계 정기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에서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수들, 조교를 위시한 100명이 강원도 일대를 다녀오면서 견문을 넓히고 학과 구성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고고학과는 매년 학생들의 전공수업에 도움을 주고자 토기소성실습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실습은 4월 29일(화)~5월 2일(금) 3박4일간 학부생 및 교수를 포함하여 35명의 인원이 감해진례에 다녀왔다. 토기를 조별로 직접 만들고 구워보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을 고양하고, 고고학 유물을 직접 만들고 다룸으로써 사물에 대한 뛰어난 관찰력과 이해력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의 2014년 상반기 연속기획특강이 「개혁기 공간생산과 노동자: 심양 철서구의 사례」(박철현, 국민대학교, 3.13[목]), 「맹자, 해석을 말하다」(정천구, 바카데미아 고전학자, 4.11[금]), 「나의 동서문화사의 이해: '한-당' 식 교류 Vs. '송-명' 식 교류」(김성규, 전북대학교, 5.16[금]), 「랑시에르의 해방된 대중과 지식인」(주형일, 영남대학교, 6.12[목])이라는 주제로 4차례 실시되었다. 인문학연구소 비교문화학 센터의 집중 콜로키움, 「문화의 사이, 번역의 자리」가 4월 25일(금) 열렸으며, 「문화의 복수성과 주변의 가능성」(2.13[목]), 「주변부 문화의 도전과 연대」(5.22[목])이라는 제하의 국내학술대회도 개최되었다. 아울러 「세계사의 구조와 동아시아」(가라타니 고진, 5.23[금])를 주제로 세계사학초청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점필재연구소

점필재연구소에서는 지난겨울, 밀양시민과 함께 하는 <밀양시민 동서양 고전아카데미>를 1월 21일(화)~25일(토)에 총 5강에 걸쳐 진행하였다. 14회째인 이번 고전아카데미는 대상을 서양고전으로까지 확장하여 <서양과 동양, 밀양에서 고전으로 만나다/겨루다>라는 주

학과/연구소 소식



제로 동서양의 대표적인 서사시, 논설, 사상서 등을 통해 신화와 현실, 삶과 사랑, 일상과 개혁의 관계를 모색한 고전 지성들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안은 동서양의 고전 명편들을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밀양하남도서관과의 공동기획인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인문정신으로 밀양을 물들이다』는 밀양하남도서관에서 4월 3일(목)부터 5월 29일(목)까지 총 3부 9강에 걸쳐 진행되었다. 2회 차를 맞는 찾아가는 인문학강좌는 연구소의 기본 목표 중의 하나인 지역과의 연계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획이며, 지역시민, 청소년들과 인문학으로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다.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연구소는 「다문화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주제로 한 협동연구 초청세미나, 「이방인이 본 우리시대의 다문화 풍경」이라는 제하의 제10회 초청강연회, 「Globalisation Angst in Germany 1870~2000」을 타이틀로 한 제12회 해외학자 초청세미나, 「독일이 모델인가?—독일의 신자유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윤리」를 주제로 대학원생을 위한 제2회 해외학자 초청강좌 행사를 마련하였다. 제23회~25회 학술세미나는 「다문화共生의 樣相들: 선주민·이주민·이방인」, 「다문화와 로컬리티: 언어, 사유, 공동체」, 「다문화와 로컬리티: 국경, 교류, 자기서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4회 공동주최 학술회의는 「중세·근세시대 도시의 모습과 삶—한국과 일본—」이라는 주제로, 한국중세사학회·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는 「고려사 연구의 새로운 자료 발굴과 해석」 주제로,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는 「현대 과학기술과 생명」 주제로, 그리고 로컬리티의 인문학 제6회 국제학술심포지움은 「타자성과 공생의 로컬리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외 대학연구소 및 국내 학회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동문소식

이인실 동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 회장으로 선출됨



이인실(불문 79)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가 지난해 10월 27일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 Korea) 총회에서 제24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임기는 2년이며, 올해 5월 제주도에 개최된 제28차 총회에는 전 세계 80여 개국 1,000여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이인실 동문은 본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프랑스 로베르슈맹 법과대

학원(CEIP)과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LL.M)에서 수학하고, 1985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1985~1994년간 Kim&Chang 법률사무소에서 일했고, 1995년 프랑스 Cabinet Lavoix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대한변리사회 섭외이사과 한국여성변리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특허청 산하의 각종 위원과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한국협회 상임이사,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이사를 거쳐 2012년부터는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 수석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농림수산부, 지식경제부 등의 정부 부처 관련 전문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교수동정

정년퇴임 교수



중어중문학과 강식진 교수

강식진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臺灣輔仁大學의 문학 석사를 거쳐 1985년 國立臺灣師範大學 연구원 파견근무 중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4년간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재직하면서 대외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한국역사정보화전략기획수립사업(SP) 전문위원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심사평가위원회 인문학분야 위원, 한국중국어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전공은 중국어학이며, 주요저서로는 『《老乞大》《朴通事》研究—諸書之著成及其書中漢語語音語法之釋論』, 『진명 뉴밀레니엄 중한사전』을 필두로 한 중국어 사전들, 『중국문화 신해』 등, 다수의 단행본과 아울러 여러 편의 중국어[학] 관련 공저들이 있다. 논문으로는 「老乞大朴通事研究(III-1)—原刊에서 新釋·重刊까지의 語法 變化—」, 「中國語 韻母의 十四世紀 이후 變化 研究」와 같은 중국어[학] 관련 논고들을 위시하여 「한국의 「字序法」 고찰」 I, II, III편 등 국어학에서의 한문관련 논고들도 여러 편 발표하였다.



영어영문학과 안동환 교수

안동환 교수는 부산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동대학원에서 문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80년 미국 Georgetown 대학교 언어학과 대학원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8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근무를 시작으로 198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3년간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재직하였다.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미국 Duke University,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등에서 파견·방문교수를 지냈다. 학내 적으로 인문대학장, 언어연구교육원장, 대학원 교무과장, 교수회장 등을 역임하고, 대외적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평가위원, 전국국공립대학교 수회연합회 상임회장, 한국영어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전공은 통사론이며, 저서로는 『과학과 인간의 목표 (일반미론의 이해)』, 『영어 통사론 그리고 논증』, 『통사론: 생성문법이론의 소개』, 『코퍼스언어학개론』, 『영어 문장 분석』 등 다수의 단행본과 『영어의 선행사 포함 생략구문에 관한 연구』, 『통제 구문의 이동 분석에 관한 고찰과 제언』 등 여러 편의 논문이 있다.

신임교수 부임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허순우**

허순우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동대학원에서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0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에서 박사후 과정 연구원과 연구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국문 장편 고전소설 감상에 도움을 주는 “국문 장편 고전소설 감상사전(가제)”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중화주의 규열이 초래한 주체의식의 혼란과 극복의 서사—〈태원지〉, 「현실적 문제 제기와 낭만적 해결법의 모색—〈영이록〉의 작품 성격 재 고찰」 등이 있으며, 역서와 저서로는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 〈소현성록〉 3, 4』 (2010, 공역),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 〈조씨삼대륙〉 5』 (2010, 공역), 『조선시대 여성의 다문화와 규방다례』 (2014, 공저)가 있다.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이지은**

이지은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국제회의통역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중국 베이징대학 중문과에서 『양사의 범언어적 연구(量詞的跨語言研究)』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어 통사론, 언어유형론, 중국어교육 등이다. 中國對外經濟貿易大學,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강의한 바 있으며, 2012년부터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현재 『언어와 정보 사회』, 『한중언어문화연구』에서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언어유형론의 새로운 접근(上)」, 「언어유형론의 새로운 접근(下)」, 「통합적인 기능 향상을 위한 중국어 듣기 수업 모델 구성」, 「從類型學的角度看漢語的個體量詞」, 「類型學背景下的韓漢語複數標記對比研究」 등이 있다.

인문대 교수 연구년

- 김혜준(중어중문학과) | 1년(2014.9.1.~)
- 박정환(독어독문학과) | 1년(2014.9.1.~)
- 최동규(노어노문학과) | 1년(2014.9.1.~)
- 유재건(사학과) | 1년(2014.9.1.~)

교수동정단신

- | **권경근** 교수(국어국문학과)는 2월 13일(목)~17일(월) 홍콩의 한국어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 자료를 조사하러 홍콩에 다녀왔다.
- | **이재봉** 교수(국어국문학과)는 2월 5일(수)~8일(토) 근대 일본의 문학 및 문화 관련 자료를 조사하러 일본에 다녀왔다.
- | **김세환** 교수(중어중문학과)는 2월 14일(금)~18일(화) 김지장 보살 및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유적지를 답사하러 중국에 다녀왔다.
- | **김혜준** 교수(중어중문학과)는 1월 25일(토)~28일(화) 관련학과와 연구를 협의하고 연구조사를 하기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 | **남덕현** 교수(중어중문학과)는 1월 5일(일)~8일(수) 계절학기의 학과단위 해외파견 학생들을 인솔하여 중국 상해교통대학에 다녀왔고, 6월 1일(일)~3일(화) 중국 현지 교육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자료 수집을 위해 중국에 다녀왔으며, 6월 19일(목)~21일(토) 북경소재 의료기관과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였다.

| **이지은** 교수(중어중문학과)는 5월 1일(목)~6일(화) 미국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IACL-22 & NACCL-26 학회”에 참석하여 논문발표를 하였고, 6월 23일(월)~7월 1일(화) 대만의 언어학 연구 동향 파악 및 해당 자료 수집을 위해 대만에 다녀왔다.

| **김임숙** 교수(일어일문학과)는 2월 15일(토)~17일(월) 수행 과제에 대한 일본 도서관 자료를 열람하고 수집하러 일본에 다녀왔다.

| **류민하** 교수(일어일문학과)는 3월 4일(화)~14일(금) 경도대학·경도산업대학·오사카대학의 연구자들과 도서관을 방문하러 일본에 다녀왔다.

| **오경환** 교수(일어일문학과)는 2월 10일(월)~19일(수) 국내에서 입수 불가능한 일본 도서관자료를 열람하고 일본 연구자와 의견을 교환하러 일본에 다녀왔으며, 2월 27일(목)~3월 3일(월)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연구회 참석 차 재차 일본을 방문하였다.

| **조강희** 교수(일어일문학과)는 2월 23일(일)~25일(화) 나고야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연구 자료를 조사하러 일본에 다녀왔고, 6월 18일(수)~22일(일)에는 특강과 논문발표를 위해 방일하였다.

| **조강희** 교수(일어일문학과)와 **김동철** 교수(사학과)는 4월 17일(목)~19일(토)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지원하는 한일 양국 연구자의 공동 프로젝트 ‘對馬宗家文書朝鮮書簡調査’를 위하여 대마역사민속자료관 소장 한글 서간 자료를 조사하고 세미나에 참석하러 일본에 다녀왔다.

| **김용규** 교수(영어영문학과)는 2월 5일(수)~8일(토) 비교문화, 문학 연구, 번역학 관련 자료를 조사하러 일본에 다녀왔다.

| **배만호** 교수(영어영문학과)는 1월 17일(금)~21일(화) 제17기 해외봉사단 파견학생들을 격려하고 연변대학교의 교류를 모색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였다.

| **윤일환** 교수(영어영문학과)는 1월 19일(일)~3월 1일(토) 미국 보스턴 일대에서 실비아 플라스 연구 자료를 조사하였다.

| **이신진** 교수(영어영문학과)는 1월 24일(금)~2월 8일(토) BK21PLUS 사업단의 영상번역관련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 차 호주에 다녀왔다.

| **이재성** 교수(영어영문학과)는 1월 16일(목)~2월 26일(수) 미국 내 저서출판을 위한 자료 조사차 미국에 다녀왔다.

| **정병연** 교수(영어영문학과)는 3월 20일(목)~23일(일) 『상실의 지리』 과제와 관련하여 일본 내의 이민자들의 차별적 지리의 공간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 **윤애선** 교수(불어불문학과)는 2월 21일(금)~28일(금) 다국어 자동처리를 위한 공통 언어자원개발 및 표준화 방법론 공동연구를 위해 체코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였으며, 6월 15일(일)~17일(화) Interoperable Asian Language Resources 개발 논의를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 **니나** 교수(노어노문학과)는 3월 15일(토)~23일(일)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학회인 “러시아어: 역사적 운명과 현대화”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 **이용권** 교수(노어노문학과)는 2월 3일(월)~13일(목) 이스라엘 연구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였다.

| **김성진** 교수(한문학과)는 1월 26일(일)~27일(월) 통신사 왕래코스를 답사하고 관련사찰 방문을 통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러 대마도에 다녀왔다.

| **김남이·김성진·김승룡·정출현** 교수(한문학과)는 6월 20일(금)~25일(수) 중국 ‘강남’에 대한 지식의 형성과 관련한 사업단 아젠다 심화를

교수동정/신간소개

대학원생 간 교류를 위해 중국에 다녀왔다.

▶ **김태호** 교수(언어정보학과)는 3월 5일(수)~9일(일) 제2차 아시아태평양 코퍼스 언어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홍콩에 다녀왔고, 5월 13일(화)~17일(토) 북동언어학회에 초청특강 및 대학원생 대상 언어연구 특강을 위해 러시아에 다녀왔다.

▶ **이종봉** 교수(사학과)는 1월 5일(일)~20일(월) 제17기 해외봉사단 파견학생을 인솔하여 중국 연길에 다녀왔다.

▶ **김동철·곽차섭·최원규** 교수(사학과)는 3월 26일(수)~29일(토) 사학과 춘계 정기 문화유적답사를 위해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인솔하여 대만에 다녀왔다.

▶ **김용환** 교수(철학과)는 3월 24일(월)~26일(수) 불교사상에 관한 연구 자료 수집 차 일본에 다녀왔다.

▶ **최우원** 교수(철학과)는 1월 12일(일)~19일(일) 아시아철학회 공동회장으로서 인도 뉴델리에서 제7차 세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논문을 발표하였다.

▶ **정해양** 교수(철학과)는 5월 8일(목)~12일(월) 자유과제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연구자료 수집을 위하여 중국에 다녀왔다.

▶ **신경철** 교수(고고학과)는 1월 15일(수)~17일(금) 고고학 관련 학술자료조사·수집·의견교환을 위해, 2월 16일(일)~19일(수) 근년 '시마네(島根)' 현 출토 고대 한반도관련 철기 및 토기 등의 고고자료를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러, 3월 12일(수)~14일(금) 학술자료조사와 수집을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 **양은경** 교수(고고학과)는 1월 4일(토)~12일(일) 운강석굴 상부 불교사원지 조사에 대한 학술조사를 위해, 5월 15일(목)~19일(월)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최고전문가과정 국외연수 차 중국에 다녀왔다. 그리고 6월 10일(화)~14일(토) 우즈베키스탄의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우즈베키스탄 발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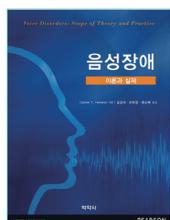
신간소개



『한국어 시능말 사전』

박선자·김문기·정연숙 엮음, 세종출판사, 2014

『한국어 시능말 사전』은 지금까지 여러 자료에 흩어져 있던 시능말을 모아 이 가운데 토박이말로 된 시능말을 모은 사전이다. 지금까지 시능말을 '짓시능말', '소리시능말'로만 분류한 것에 더해, 우리말에 발달되어 있는 '느낌'을 나타내는 '느낌시능말'을 따로 세운 것이 이 사전의 특징이다. 그리고 시능말과 풀이말 사이에 나타나는 기본적 특성인 어울림 관계(공기 관계)를 다루고 그 쓰임을 풀이하여 반영한 것도 이 사전의 특징이다.



『음성장애 이론과 실제』

Carole T. Ferrand 지음, 김성태·표화영·권순복 옮김, 박학사, 2014

『음성장애: 이론과 실제』의 저자인 Carole T. Ferrand는 음성장애 환자를 돕는 최선의 방법은 언어치료 전문가와 의사의 시각에서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분야의 학술적, 전문적 지식을 접목시킴으로써 이 책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음성장애의 원인, 증세, 평가 및 치료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세밀한 지식을 제공한다. 선명한 컬러 사진과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통해 Ferrand는 독자의 의학 지식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가장 복잡한 개념도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우리시대 고전읽기/질문 총서』 「사상의 번역: 쉰거의 <다케우치 요시미라는 물음> 읽기와 쓰기」

윤여일 지음, 현암사, 2014

인문학연구소가 기획하고 현암사가 펴내는 인문교양 총서 '우리시대 고전읽기 질문 총서' 시리즈 4권으로, 한국 지식장 안에 동아시아의 사상이 갖는 고유의 질감을 해석해 꾸준히 선보였던 저자 윤여일이 쉰거가 읽은 다케우치 요시미, 그 사상적 만남을 그들이 처한 역사적 맥락과 하나하나 세심히 엮어 풀어나간 책이다.



『우리시대 고전읽기/질문 총서』 「젠더는 패러디다: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 읽기와 쓰기」

조현준 지음, 현암사, 2014

인문학연구소가 기획하고 현암사가 펴내는 인문교양 총서 '우리시대 고전읽기 질문 총서' 시리즈 5권으로, 2008년 국내에 출간되어 주목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젠더 트러블>에 대한 해설서이다. 당시 <젠더 트러블>을 직접 번역한 저자 조현준은 출간 이후 열린 많은 강연과 세미나 모임에서 접한 '젠더 트러블 읽기'의 고충을 정리했고, 그 결과물로 이 책이 탄생했다.



『대학교수 13인의 명강의』

김은영·이창재·장경원의 1명 공저, 한국교육개발원 편, 학지사, 2014

SBS 문화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12년부터 10년간 대학의 명강의 100개를 발굴하는 장기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선정된 강의를 다 큐로 제작 방송하기로 하였다. 그 중 명강의로 선정된 13개 강의를 이 책으로 펴냈다. 그 중 한 강의(일반음성학)로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권순복 교수의 강의를 소개되었다.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비린더 S. 칼라·라민더 카우르·존 허트닉 지음, 정영주 옮김, 예코리브르, 2014

『디아스포라와 혼종성』은 디아스포라와 혼종성에 대한 주요 논쟁을 망라한 정치적 성향의 평가서이다. 현대의 사회적 투쟁과 문화적 맥락을 주제와 연결하여 오늘날 문화주의 학문세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이데올로기 논쟁과 이론 및 내러티브를 보여주고 평가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 아울러, 디아스포라와 혼종성이 경쟁적인 문화·정치·경제의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트랜스내셔널 공간이 시작되는 민족과 집단의 전통적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있는 도구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

A. 쿤 지음, 이영옥 옮김, 심산, 2014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산하 로컬리티의 인문학 연구단에서 내놓은 《로컬리티 번역총서》이다. 저자는 중국인의 이민사를 다루면서 양적 다양성과 총체성이 아니라, 지역에 따른 생태적 차이를 주요 주제로 삼아서 비교한다. "생태"는 여기에서 "주민들이 환경에 대처하는 태도"로 사용된다. 그래서 중국 이민사의 모든 것을 포괄하려고 하는 대신에, 어떤 특정 환경과 시기에 존재 하였던 중국인의 이민 경험 중에서 주요한 변종들을 서술하였다.